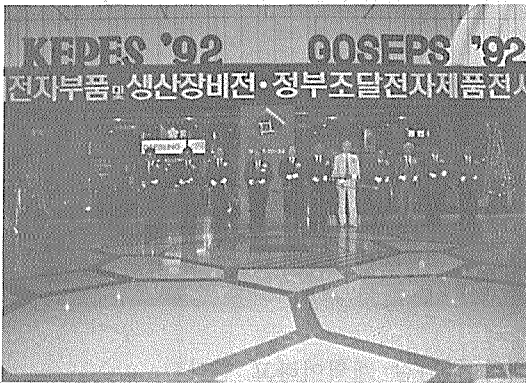


'92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 (Korea Int'l Electronic Parts & Equipment Show '92)

〈'92. 5. 20~ 5. 24〉



로 개최되 왔으며 그동안 외국의 수입규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있는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내수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제규모의 전문전시회를 개최하므로 해외바이어 국내유치 확대, 전자부품 및 소재산업의 직수출,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 조성 확대, OEM수주기회 확대, 자동화생산장비의 수입대체 촉진,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도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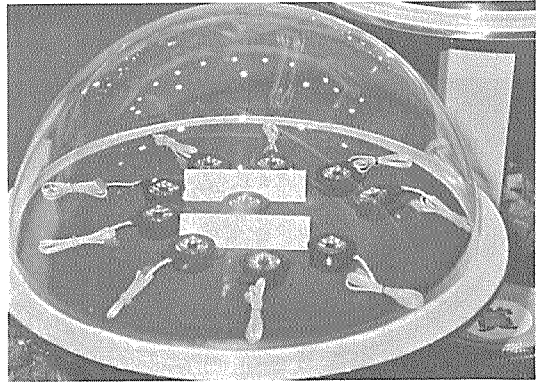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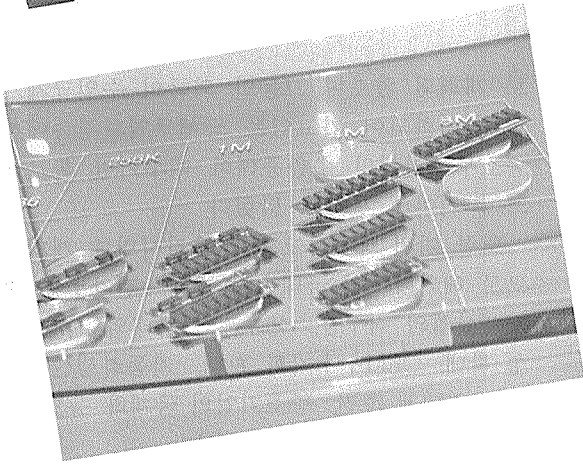
각종 전자부품, 소재 그리고 자동화생산장비들을 일괄전시하여 국제규모의 전자부품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의 신제품들이 전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요 전시품으로는 셋트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칩저항기(Chip Resister), 칩콘덴서(Chip Capacitor), 칩코일(Chip Coil), 각종 스위치류 및 센서, 광학부품 등 신제품, 신규격의 부품들이 전시됐다. 생산장비로는 칩마운팅머신(Chip Mounting M/C), 부품자동삽입기(Auto insertion M/C), 자동권선기(Auto Winding M/C), 자동납땀기(Auto Solder-ing M/C), 로봇 등 자동화장비가 다량 전시되어 전자업계의 생산자동화 촉진과 국산 생산장비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동 KEPES전시회는 선진외국의 수입규제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속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수입제품으로

'92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KEPES '92)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KOTRA 공동으로 '92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KOEX 태평양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전자부품산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전시회는 올해로 7회제를 맞이했고 전시면적 2000평규모에 국내 150개사 외국 10개국 30개사 등 180개사가 참여 400여종에 이르는 각종 부품 및 자동화장비를 전시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 내국인 10만명과 1000여명의 외국바이어가 참가한 약 2억 달러의 수출상담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은 KEPES가 중소기업, 관련 자동화생산장비업체들의 국산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직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전자부품전문전시회로 7년 동안 꾸준히 내실 있는 전시회



부터의 내수시장확대도 동시에 충족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미국, 프랑스, 스위스, 서독, 스웨덴, 대만, CIS 등 10개국에서 35여개사가 참가했는데, 특히 동구권에서의 전시 관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동 전시회를 통한 수출상담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자부품업체들은 선진 외국의 유명규격인 U/L, FCC, CSA, VDA, BSI, JIS 등 외국유명 규격을 다수 획득하여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자조합에서는 동 전시회를 중소전자부품업체와 관련자동화 생산장비업체 등의 전문전시장으로의 기반조성을 계속 확

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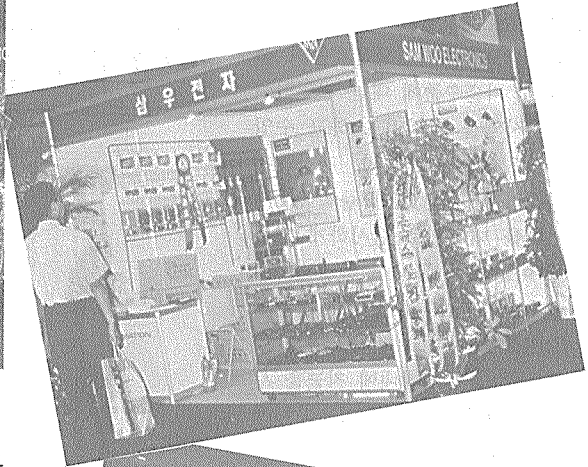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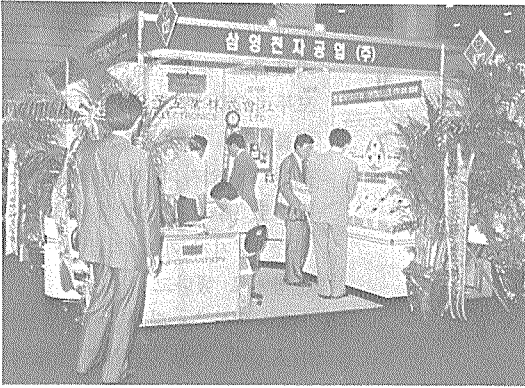
또한 이번 전시회는 정부조달제품에 대해 별도 부스를 배정 「'92 정부조달 전자제품 전시회」라는 명칭으로 전시, 공동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요자들이 국산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정부조달제품 전시회에는 CCTV, 워키토기, 모델 등 10여종의 조달전자 제품을 일괄 전시 관련산업의 첨단기계화와 우수성을 인식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특징으로 전자부품 및 장비의 소형경량화, 고급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기술력에서 뒤져 국산화가 저조했던 통신용 부품의 전시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동 전시회의 특징은 이번 전시회의 부대 사업으로 제3회 전자부품 신제품 경진



대회에서 볼 수 있는 소형화부품, 통신용부품의 수상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상공부장관상(금성사-헤드폰 스테레오용 테크메카니즘), (삼영전자공업-유기고분자습도센서), (경인전자-레디얼 테핑 스위치), 공진청장상(삼화콘덴서공업), 대성전기공업, 금성알프스전자, 특허청장상(삼호전지, 원광전자, 회성금속공업), 조합이사장상(한국시바우라전자, 유유, 동아기전) 표창을 수상한 제품들이 그 예이며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업체의 기술인력의 사기전작을 크게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부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산업의 증추를 이루고 있는 부품산업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KEPES '92는 국내전자산업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 열린 만큼, 단순히 보여



주기가 아니라

우리전자부품산업의 현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제시해 주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보다 효과적인 KEPES '93을 기대해 본다.